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춘향제 개막

남원시, 5월 6일까지 광한루원 · 요천변 일원서 153여개 다채로운 행사 개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제95회 남원춘향제가 지난달 30일 개막해 5월 6일까지 7일간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광한루원 및 요천변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소리의 고장이자 국악의 성지로 손꼽히는 남원의 특색을 살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소리와 기술이 융합된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를 메인테마로 10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 구성으로, 총 7일간 153여개 다채로운 행사 등이 가득 펼쳐질 예정이다.

첫날인 30일에는 춘향로 참배로 춘향제의 첫 일정을 시작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제95회 시니어 춘향선발대회가 진행됐으며,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세계로 문화를 연 남원 춘향제의 꽃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올해 축제 첫날 전야제 성격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치러졌다.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축제의 시작으로 춘향의 정신을 기리는 제례의식인 '춘향제향'(1일, 10시)이 진행되고, 저녁 7시부터 요천로 메인 특설무대에서는 개막식 행사가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도 교육감, 박희승 국회의원, 강경숙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최재원 부산대 총장, 김영태 시의회 의장, 주석화 주광주 중국 부총영사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할 예정이다.

특히 1일 개막식에서는 남원 소리 공연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제95회 남원춘향제가 지난 4월 30일 개막했다.

남원시립국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월드뮤직그룹 공연이 함께 만든 주제 공연이 펼쳐지며, 오후 8시부터는 하이키, 송소희, 케이윌, 황가람 등이 참여한 '일장춘몽 축하공연'으로 남원 춘향제 개막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올해 춘향제에서는 남원춘향제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해온 △제95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5.2~5.5) △남원 전국꽃길목공예대전(시상 5.2/안숙선명칭의 여정) △춘향제 아카이빙 기획전시 '기록의 방, 춘향의 시간'(4.24~7.13/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갤러리2) △동행축제(4.30~5.6 남원시 삼정 일원) 등을 만날 수 있

으며, 인기 프로그램인 △'발광나장-대동길놀이'는 지난해보다 확대해 총 4일간 펼쳐진다.

이에 따라 올해는 23개 읍면동에서 5,000천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 '춘향전'에 나오는 명장면들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만큼, 남원 춘향제에서만 볼 수 있는 대규모 퍼레이드로 장관을 이룰 전망이다.

최경식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올해는 100회를 향한 담대한 걸음으로 '소리'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마련했다"라며, 춘향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리랑' 정신의 산실, 김제 아리랑문학관

조정래 · 김초혜 작가, 아리랑문학관 · 아리랑문학마을 방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소설 '아리랑'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소설가 조정래 작가와 시인 김초혜 작가가 아리랑문학관 및 아리랑문학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조 작가의 대표작 '아리랑'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직후에 이르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민중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 대하소설로,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리랑문학관은 조 작가가 아리랑의 육필 원고, 관련 자료, 수집 문헌 등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03년에 개관했으며, 아리랑을 매개로 한 민족 문화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뜻을 담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조·김 작가는 아리랑문학마을로 이동해 주요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김제 지역 문학인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조 작가가 소설 아리랑의 집필 배경과 작품의 무대로 김제를 선택하게 된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아리랑문학관을 관람하며, 시가 추진 중인 아리랑 문화 활성화 계획과 문학관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 작가는 문학관 관람 후, 김제가 아리랑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장이며, 이곳에 문화관이 조성된 것은 민족의 얼을 지키는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아리랑문학관이 지역사회와 방문객 모두에게 아리랑 정신을 전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동 위케이션 기업관광 사업 설명회 성황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경운)은 지난달 29일 서울 스페이스케이 삼성역점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관광공사·재단 공동 위케이션·기업관광 사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90여 개 기업과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업설명회에서 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 된 위케이션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체험·경험 중심의 '전북형 런(Lean)케이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설명회 이후 진행된 '참여 기업·기관과의 거러 및 미팅(Business to Business)'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웰니스 관광지, 서부내륙권 연계 관광 상품 등을 소개했다. 이어 맞춤형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체험형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아동권리 확산 위한 특별 전시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 하안양육집서 31일까지 '우리가 만든 놀이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내 문화공간 하안양육집에서 아동권리 확산을 위한 특별 전시 '우리가 만든 놀이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하는 이번 전시는문화예술을 통해 아동권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어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서른 명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체험형 공간으로 구현됐다.

전시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아동권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차별·전쟁과 가난·기후위기 등 아이들이 마주한 문제를 다룬 '주제 공간' △기법 촬영을 위한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 기간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하는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이 광일 1회, 주말 2회 정기 상영된다. 특히, 17일에는 2024년 특별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GV)도 마련,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주간에는 아동권리 창작극과 창의 미술 체험 프로그램 '앨리스와 무지개지니'를 운영한다. 사전 신청을 통해 6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 15명을 회차별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모든 어른은 한때 어린이었다"는 작품 속 문장이 깊은 울림을 준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아이들은 하안양육집에서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은 아동에 대한 책임과 태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3~5일 전통놀이 체험행사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어린이날을 맞아 3~5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우리놀이 도장깨기'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놀이터 마루담을 비롯해 공예품전시관, 전주부채문화관 등 전주한옥마을

곳곳에 마련된 전통놀이 체험 부스를 순회하며 참여 하는 스탬프 투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고누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고, 각 부스에서 스탬프를 받아 미션을 완수하게 된다.

모든 체험 완료하고 스탬프를 모은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참여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선착순 운영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여행 상품 '태권스테이' 상품 판매 시작

매년 '초대박 인기'를 모으고 있는 태권도 여행 상품인 '태권스테이'가 운영 준비를 마치고 5월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태권스테이에 대한 예약과 안내는 여가 활동 온라인 사이트인 '노는법'에서 할 수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태권도 여행상품인 '태권스테이'를 5월부터 연말까지 주말과 휴일 위주로 운영한다. 5월 태권스테이 참가 비용은 1인 '한 1천원'이고, 향후 상품 구성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로 편성할 계획이다. 태권스테이 1일차에는 태권 체조와 운동회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일차에는 태권도원 여행을 비롯해 전북권과 무주군 등 지역 관광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이 있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의 태권스테이 참가자는 얼음 음

료와 솜사탕, 풍선 증정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원은 2025~2026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되는 등 색다른 관광, 휴식을 겸한 여행에 있어 최적지로 자부한다"라며 "태권도를 활용한 스포츠 관광 상품으로 올해도 높은 만족도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